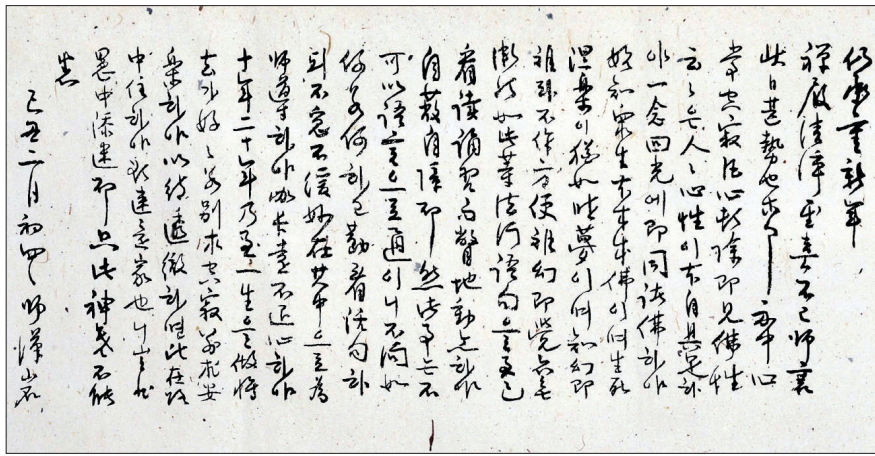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10)의 편지 <10>

깨달음,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오해런 스님에게 보낸 답서(1)

보낸 편지는 잘 받았네. 새해에 법체가 청정하다고 하니, 기쁘게 그치지 않네. 나는 날이 갈수록 노쇠해 가고 있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니 이것을 어찌하겠는가?

그대의 편지에서 "마음은 항상 공적(空寂)하니 범부의 마음을 몰록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나고 물어 왔는데, 그 말은 사람마다 심성(心性)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한 생각(망념)을 돌리면 곧 모두 부처와 같은 것이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생사열반이 마치 지난 밤 꿈과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 환(幻)인 줄 알면 곧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幻)으로부터 벗어나면 곧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점차(漸次, 漸修)가 없는 것이네. 이와 같은 법문은 자네도 이미 많이 보았고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 문득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장애를 일으켜서 되겠는가?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일은 언어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활구(活句)를 참구하되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느리게도 하지 않는다면 묘미(妙味)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서 오래도록 공부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일 별도로 공적(空寂)함을 구하고 별도로 안락함을 구하여 투철해질 것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마치 길 한 가운데(망상 속)에 있으면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깨닫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리석음 속에 미혹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만 줄이네. 정신이 흐려서 다 쓰지 못하네.

기축(1949년) 2월 초4일 사(師) 한암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열반(1951년)하기 2년 전인 1949년에 오해런(吳海蓮)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오해런스님은 1950년대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분으로 한암선사를 매우 존경했다. 오해런스님의 기억력은 매우 탁월해서 강원의 학인들이 "스님, 이것이 무슨 글자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 그 글자는 화엄경 몇 권 몇째 줄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화엄경을 '책' 열면 바로 그 글자가 있는 페이지를 보여 주었다고 하니, 가히 천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오해런스님이 "마음은 항상 공적하여 무릇 마음을 몰록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나고 물어 왔었다.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사람마다 본래 심성, 즉 본성을 갖추고 있어서 한 생각을 돌리면, 곧 모두 부처와 같고,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활구(活句)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활구를 참구할 때는 너무 급하게도, 또 느리게도 하지 않는다면 화두 참구의 묘미(妙味)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서 오래도록 공부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일 별도로 공적(空寂)함을 구하고 별도로 안락함을 구하여 투철해질 것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마치 길 한 가운데 즉 망상 속에 있으면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깨닫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 서간은 몇 년 전에 통도사에서 오해런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중앙승가대학에 기증했는데, 그 속에서 발견되었다. 원본은 중앙승가대학 도서관에 있고, 원정사에는 복사본이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르신 위한 자비의 공양간, 전철역 무료급식 보시행 13년

우신 스님 (혜일암 주지)

10살의 소녀가 매장의 현장을 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죽음은 무섭다.' 라는 아무도 모를 고민을 안고 두 여 해를 지내는데 집안의 장남이던 큰 오빠의 죽음이 다시 12살의 어린 소녀를 덮쳤다. 공포였고, 흥기와도 같았다.

소녀는 교회에 빠져들었다. 12살의 소녀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5년을 매일같이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돌이켜봐도 지은 죄는 없었다. 그뿐인가. 예배일마다 헌금을 내야 하는 제도 속에 또래의 어린 것들 가슴에는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빈손으로 자신 앞에 온 헌금함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큰 숙제가 된 날마다 '죄인'이라는 말에 더는 교회를 다니는 일이 싫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여고생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불교 서클인 달마회였다. 3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고 불교의 가르침만한 공부가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게 되었다. 너무나 신명나는 공부였고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세상을 만난 것이다.

죽음 화두로 출가... 세상에 회향

법랍 40년, 세수 61세로 환갑을 맞은 우신 스님이 여전히 즐거운 것은 불법의 정중앙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추호도 변함없는 자세로 출가사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이관대로 살아온 삶의 궤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신 스님은 출가해 지금껏 유연한 삶의 운영자였고 당당한 이 땅의 비구니 승려였다.

우신 스님은 네 살 때 부친을 여의었다.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별세는 슬픈 일이 분명했으나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보상으로 비교적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약간의 나이를 먹은 딸은 출가 대신 그 무엇도 기대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강행하게 된다. 그것이 1974년의 일이다.

이후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다녔고, 선방의 수좌로도 살았다. 출가승의 초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으며 그저 누더기 한 벌에 검은 고무신 한 켤레만 된다는 생각으로 여려한 사문의 길을 걷고만 싶었다.

그러나 인연의 소치였던 것일까. '토굴 하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던 1989년 어느 날, 지금의 혜일암과 인연이 닿은 것이다.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아담한 마을에 작은 포교당을 여는데 여천 무비 스님이 '혜일암'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다.

출가하여 열불, 참선, 간경 등 많은 수행법을 두루 해 온 스님에게 기도만큼 정확한 것은 없었다. 그러던 2002년 우신 스님은 기도만큼 급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시행이었다. 사회는 고령화로 치닫는데 그들을 위한 복지가 너무도 소홀하다는 거였다. 독거 어르신을 포함해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스님은 구서동 전철역에 무료급식소를

제공했으니 돌아온 것은 결국 맛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였다.

이왕이면 어르신들의 기호에 부응하자는 뜻에서 화·수요일 아침마다 몸소 장을 봤다. 갖은 채소를 구입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목말라하는 육류, 생선류를 첨가했다. 그렇게 급식을 하기 시작하자 식사량이 바뀌었다. 굉장히 호뭇해하며 잘 먹었다는 말이 그치지 않았다. 끼니를 제때 들지 못한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음식은 고기가 섞인 식단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신 스님은 3년 만에 식단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천시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어김없이 무료급식소를 지켰다. 급식소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자원봉사자의 숫자도 비례해 늘어났다. 봉사활동에는 회장 김성연 불자를 위시하여 30여 명이 일상분란하게 급식에 가담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 역시 많을 때는 800명을 훌쩍 넘었다. 평소에는 600명이 점심 식사를 위해 급식소를 찾는다고 한다.

죽음을 화두로 고민하던 소녀

교교 시절 달마회 활동하며

불법 만나 졸업 후 출가

1989년 포교당 혜일암 개원

노인복지 열악한 현실 안타까워

2002년 구서동 전철역에

어르신 위한 무료급식 시작

메뉴 연구 거듭하며

매주 600명에게 급식 공양

일종식 수행하며 보시바라미 실천

스님의 평소 성정은 여유롭다. 발 앞에 불이 떨어진다 하여도 여유를 찾는 스님이지만 급식소에 머문다는 '호랑이'로 변한다. 이유인즉,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어린 공양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뒤처지거나 대충이라는 식의 배식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모를지기도 기도와 수행에 버금가는 일이 스님에게는 어르신들의 급식이라는 거였다.

하루 세 시간 잠을 잘 만큼 스님은 선천적으로 잠이 없는 편이다. 유년시절부터 이어온 아주 오래된 습이다. 그 덕분에 스님은 수마를 겪어본 기억이 없으며 그런 만큼 기도에는 둘째 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기도, 신도들과의 상담, 어르신들의 급식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여말한 삶의 스님에게도 잠시의 충전은 필요했다. 2011년 한 후배스님의 제안으로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무문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두 달 동안 일종식을 하며 무문관 수행에 드는데 날이 갈수록 수행으로 익어가는 내면의 모습을 보았고 그 환희심은 상향곡선을 그리며 마치 극락세계로의 안내인 듯 했다. 그날의 수행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스님은 날마다의 환희법어를 몸으로, 가슴으로 확인했고 그것은 기록으로도 남아 단단히 살아있는 스님의 보시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스님은 지금껏 일종식을 하고 있다.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일종식이라고 하여 허기감을 느끼지도 않으며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급식을 하거나 대중공양 길에 나서는 날에도 기운은 더 없이 청량하여 무엇을 해도 결림이 없다는 소회였다.

무엇에 걸리겠으랴. 선행으로 무르익으니 더할 나위 없을 터며 기도로 일관하니 복덕은 구족해질 터다. 더욱이 급함이 없고 여유로운 성정까지 가세하니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한 원은 멈춤이 없을 것이다.

우신 스님의 급식 얘기는 단순 어르신들의 봉양 얘기에 그치지 않았다.



우신 스님은 매주 2회 600여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우신 스님, 오른쪽이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우신 스님은 매주 2회 600여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우신 스님, 오른쪽이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제본: 한장본 실제본

11호~17호 법화경(한문) 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 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출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구성: 한지날장
크기: 636mm×313mm

금지 관음도 액자

문수보살 보현보살 양류보살 월광보살 유리보살 일광보살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 이상) 정가 30,000원

포장: 골판지 크기: 38cm×58cm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7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할인가 160 (600개 이상)

할인가 900원

할인가 1,000원

할인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정가 27,000원 (100벌)

정가 160원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가방 크다고 꼭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 크다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구요. 선방 수좌로 살던 시절,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던 말씀들이 지금도 경책이 되고 있어요. ‘승가는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라며 자비가 철철 넘쳐나는 승가로 중생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랬을 터다. 스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스님이 되어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계율에 철저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됨 없이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난 남들에게는 거절을 못하는 성품이예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아주 혹독하죠. 모르긴 해도 그 혹독함과 철저함이 수행을 하게 했고, 급식을 이어가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님의 빈자리와 효를 다하지 못하고 여생을 마감하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 여러 어르신들을 봉양해 드리는 일로 연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쯤 되니 복덕을 구축해야 무엇이든 가능해진다고 알려주신 선지식의 말씀이 떠올랐다. 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듯해 여쭙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지요. 노천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니 비가 오면 날이면 급식이 안돼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사시사철 어르신들 끼니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급식에 임하니 부족하긴 해도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의 후원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봉사자들의 보시와 저의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유일한 기도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절로 되는 일은 없거든요.”

우신 스님의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 한통이 걸려 온다. 누군가 스님의 급식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하며 떡국을 보내줬노라는 전화였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로 오늘 하루 급식을 중단했기에 객(기자)에게도 스님과의 한담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끊임없이 울려대는 유, 무선 전화기에 대고 스님은 연신 답변을 해야 했다. “네에, 오늘 급식 없어요, 내일은 하구요” 라며 뭇등을 찌푸리고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스님이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급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진 것 없으신 분, 혼자 사는 분,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분들 그렇게 세 부류의 어르신들이 급식소를 찾습니다. 그러니 비라도 오면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아요. 다들 어디 가서 점심 드실까 하구요.”

우신 스님의 진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스님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따듯한 말씀도 들려 줬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평등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잘 하는 것을 남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에는 이길 재간도 없어요. 그러면 복도 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게으르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주인’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만큼만, 시키는 만큼만 한다면 영원히 종사자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념으로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계이었다. 불교인으로 살아가며 어렵지 않게 듣는 말 중 하나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일 것이다. 스님 역시 하화중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었다. 너나 없이 속고 있는데 그 업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신 스님의 말이다. 그런 스님을 찾아오는 반면의 스님들도 적지 않다. 격려와 후원을 위해 어쩌다 귀한 걸음 해주시는 스님 중에는 앉은 자리에서 보시행을 치하하는 시를 한수 지어 걸어주는가 하면, 물품 후원도 아낌없이 이뤄져 스님을 힘나게 해준다.

그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봉양하는 세대에서 봉양



우신 스님은 ... 1954년 충남 태생으로 1974년 청도 운문사에서 출가 1976년 송광사 구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7년 운문사 승가대학 입학, 1980년 제방 선원사 6만거 성만, 1989년 해일암 주지로 부임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구서동 전철역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공양하고 있다.

받는 세대가 되실 텐데요, 그때도 스님은 이 급식소를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저희 해일암은 여느 절의 법당처럼 큰 법당도 아니고, 여느 도량처럼 여법한 형태의 모습도 아닙니다. 단지 무료급식이라는 특별한 이름표를 하나 더 갖고 있지요. 여 일하게 해일암의 급식을 이어나가 줄 누군가가 있다면 설혹 나 하나 봉양을 받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몸 하나 들일 토크생활로도 난 거뜬히 행복할 테니까요.”

한담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스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긍정성이 다분하고 즐거움이 일상이기도 하겠으나 스님은 예순 한 살 환갑을 맞아 인연 닿는 선방마다 대중공양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스스로를 위한 일에는 단 돈 몇 만원이 아까운데 누군가를 위해 보시를 하는

순간이면 그렇게도 큰 기쁨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곳, 저 곳 퍼주고 베풀고 오니 너무도 좋아 그저 웃을 일 뿐이라고 했다. 건강한 육신으로 육십 평생을 부처님 밥 먹고 살았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1년 내내 대중공양으로 돌리고 싶다는 스님다운 소회였다.

유년시절, 어린 소녀는 집을 보라는 엄마의 말씀에 진종일 집 앞 바위에 앉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마음 안의 집”을 모른 채 살았기에 어린 소녀는 형상의 집을 지키려 했을 게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신 스님에게는 자비의 집이 처처에 가득하다. 오늘도 부산 구서동 전철역 급식소를 찾아드는 어르신들에게 스님은 마음을 쉬게 할 자비처소를 날마다 지어주고 있다.

글 · 사진·김윤희(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전법일기

산부인과에 가다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가, 눈을 하늘에 두었다가, 땅을 내려다 보고 마침내 좌우를 살피며 몇 분쯤 병원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런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나는 얼굴을 한 번 쓸고는 큰 걸음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구미의 한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한 손은 부른 배에 얹고 한 손은 허리에 댄 산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음, 음, 당장 눈을 어디에 뒤편할지 몰라 헛기침이 나왔다. TV 다큐에서나 보았던 산부인과 모습이다. 마침 한 남자가 만삭의 아내를 보충하며 접수계로 다가서다 나와 딱, 눈이 마주쳤다. 눈빛에서 스님이 무슨 일로 산부인과에(?) 하는 의구심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대문사 주지 진오라고 할

오른 얼굴로 전후 사정을 전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다행이 병원과 그곳 의사 선생님 모두 지역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해주셨다. 연애도 모르고, 결혼도 안 해 본 학생이 속세에서 만난 인연들을 챙기려니 알아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임금체불과 생필품 지원으로 시작했던 구미 마하이주민센터는 노동자 상담실 운영에서 쉼터 기능으로 확장되어 오갈 데 없는 외국인들에게 24시간 숙식을 제공하고 여성 노동자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자고 권유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적막하던 센터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여성과 아이를 배려



그림 · 박구원

니다. 원장 선생님을 뵈 수 있을까요?”

발걸음을 떼는 일이 쉽지 않았던 만큼 나는 꼭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갈 곳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쉼터에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도 쉼터로 들어오는 사례가 생겼다. 그런데 이 여성들 대부분이 홀몸이 아니었다. 남자 친구를 만나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임신이 되면 일할 곳에서 눈치를 받아 마땅히 갈 곳도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나 돈 없어요. 애기 낳으려면 이백오십만 원 달라고 했어요. 나 집도 없어요.”

처음에는 임신중독으로 온몸이 팽팽부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고민을 했다.

나는 그때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나 큰 돈이 든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순산의 경우가 그렇고 수술을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정보도 산부인과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나와 전혀 무관했던 세상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도움을 청하는 만삭의 이주여성을 생각해 결국 출산비용을 할인 받기 위해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았다. 시뻘겋게 달아

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여성 노동자를 위해 비구니 스님이 필요했다. 마침 복지활동 해 보고 싶다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덧 외국인 스님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봉역 담당 이주여성들 합쳐 8명의 일꾼이 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애환을 돌봐 주고 있다.

오늘은 중국 노동자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보러 온 걸음이었다. 오랜 산고로 지쳤을 텐데 들어서는 우리를 발견한 산모가 수줍게 웃으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여줬다. 여자아이였다.

“아이고, 귀여워라! 공시니~!” 당시 축하해요를 중국말로 전했더니 아기 엄마가 잇몸을 드러내며 행복해 한다. 행복은 가족이 구성되면서 시작되는 것일 노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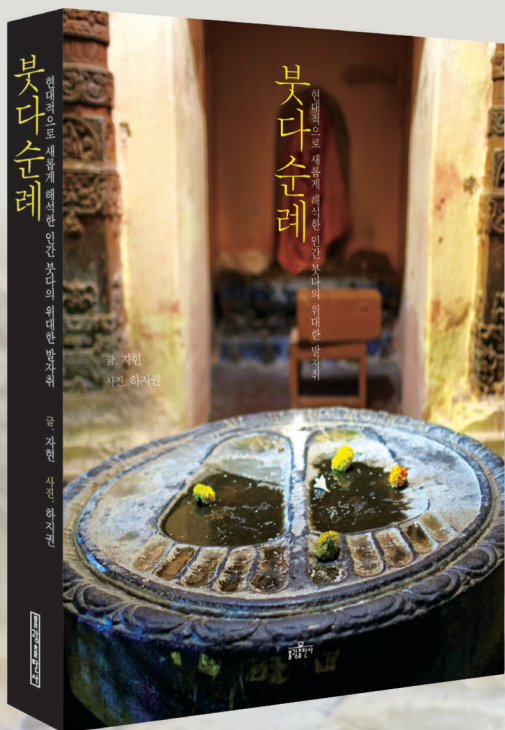
그런데 아기의 웃음은 어쩌면 이렇게 평화로울까?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세상 근심 걱정을 모두 잊게 된다는 말이 이해되는 하루였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지)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범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탐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글 · 자현 | 사진 · 하지권 | 352쪽 | 윌리엄 | 18,000원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15가지 불교적 성찰



글 · kwakhyun 192쪽 | 12,500원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kwakhyun이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충돌하는 욕망과 가치들로 어지러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는 '삶을 바꾸는 공부책'